2015
연구보고서-10
ISSUE PAPER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수행과제명 •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과제책임자 • 황정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수행과제명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과제책임자 황정임 연구위원
☞ Tel: 02-3156-7146
☞ e-mail: im1003@kwdimail.re.kr

요 약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중 한부모가족지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황정임·정가원·김유나·이호택(2015).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전국 157만 한부모가족 중 시설수용인원은 0.4%, 복지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가구는 3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은지 외, 2013:31). 이는 상당수 재가한부모가족이 정책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함.
- 201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 소득보장, 취업 및 교육, 고용지원, 주거, 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등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근로, 불안정한 주거, 심신의 불건강, 일과 가족부양의 이중부담 등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즉 이들의 문제와 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는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데 반해,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특정 목적이나 기능 중심적이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어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오랫동안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2 조사 및 분석결과

▣ 한부모가족의 지원수요 분석

- 가족유형별, 소득구간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남.

공통적인 수요도 있었음.

- 130%이하 한부모가족과 130%이상-180%이하 한부모가족에서는 자녀양육이나 돌봄지원, 180%이상 한부모가족에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부자가족에서는 가사지원,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모델의 부재, 돌봄공백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개입,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보유자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할 부분임.
- 반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지원과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 발굴 등은 공공사례관리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성에 대한 상담과 지도 등은 청소년지원체계와, 모자가족에게 주로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원은 지역보건체계와, 130%이하 가족이나 모자가족에서 주로 필요로 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고용지원체계 등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부모가족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표적 혹은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위한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외부기관을 통한 지원도 연결되는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 이렇게 볼 때 한부모가족의 소득구간에 따라, 가족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례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차원에서 내부자원 제공을 활성화하거나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맞는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해야 함.

▣ 한부모가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3개 기관의 응답결과에 따른 네트워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평균적으로 네트워크 총기관수는 약 90개, 네트워크 총 횟수는

402회, 기관 당 네트워크 횟수는 약 5.9회였음. 23개 센터별로 보면, 네트워크 총기관수, 네트워크 총 횟수, 기관 당 네트워크횟수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남.

- 네트워크하고 있는 기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협의체가 524개로 가장 많았고(25.08%), 교육관련기관 351개(16.80%), 사회복지기관 317개(15.17%), 행정기관 223개(10.67%), 상담 관련 기관 161개(7.70%), 보건의료 관련기관 168개(8.04%) 순임. 각 센터의 네트워크 총기관수와 기관유형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총기관수가 적을 경우 영역별로 고르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 내용별로는 정보교환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었고(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2439건, 정보교환을 요청받는 경우 1403건), 그 다음은 대상자의뢰(의뢰하는 경우 1092건, 의뢰받는 경우 979건) 순임. 정보교환 등은 공동협력이나 협약체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네트워크에 속함.
- 네트워크 방향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요청받는 경우보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보교환 1.7배, 회의참여 1.2배, 재정지원교환 2.8배, 인적자원교환 1.9배, 물적자원교환 3.7배나 요청받는 경우보다 요청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재정자원교환과 물적자원교환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대상자의뢰에서만 요청하는 경우(1092건)나 받는 경우(979건)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네트워크 내용별로 요청받고, 요청하는 기관들이 상이했음.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모든 내용에서 쌍방향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었음.

    (정보교환) 주로 요청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 협의체,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이었고, 주로 요청받는 기관은 협의체, 사회복지기관임.

    (회의참여) 주로 요청하고 요청받는 기관 모두 협의체였음.

(대상자의뢰) 주로 요청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상담관련기관이었고, 주로 요청받는 기관은 행정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협의체였음.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이 주요기관임.

(재정자원교환) 주로 요청하는 기관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이었고, 주로 요청받는 기관은 교육기관임.

(인적자원교환) 주로 교육기관, 상담기관에 요청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주로 요청받는 것으로 나타남.

(물적자원교환)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주로 요청함.

- 2개 센터를 선정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의 네트워크 역량(총 기관 수, 총 횟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고, 이를 고려한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기관내부 여건 미흡) 23개 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기관 차원의 네트워크 관련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는 비율이 절반 수준임.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하기엔 그 외 다른 업무량이 많고, 담당자가 비정규직이다보니 외부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취약하고, 잦은 인력 교체는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해야 하는 본 사업의 취지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의 약화, 업무단절을 초래함.
  - (기관장에 의한 실질적 지원 미흡) 기관(장)은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함.
  - (실무자의 인식과 역량 미흡) 실무자의 사례관리의 성과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지역자원의 활용 등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도 부족함.

- (후발주자로서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의 전문성 약화 및 정체성 불분명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능성 축소) 네트워크가 상호간 교환할 자원이 있을 때 활발해진다고 보면, 사업 확대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체계로서의 조직기반이 약화되었고, 사업내용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화된 사례관리체계라는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 네트워크 활성화가 어려움.
- (사업특성의 제약성) 광역형 사업구조로 인해 지역사회에 밀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네트워크 속성상 한계가 있음. 기본사업 비중이 높아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때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기관의 성격이나 내용과 맞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 있음.
- (네트워크의 편차와 편중) 네트워크 기관 수, 네트워크 건 수, 네트워크 기관유형이나 네트워크 내용 간에 편차가 크고, 편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네트워크 방향에 있어서도 대부분 요청받기보다는 요청함.

3 정책제언

제안 1) 협력적 네트워크 모델

- 네트워크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 환경과 위치, 사례관리 초점(자원연계 & 직접서비스 제공), 기관 내부여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건가센터의 네트워크 특성, 사례관리 특성, 민관 역할분담 특성,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함.

1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모델

- 네트워크 기관 수도 많고 네트워크 횟수도 많은 경우 보다 고도화, 전략화가 필요함.
- 네트워크 기관수는 많으나 네트워크 횟수가 적은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 활성화가 필요함.
- 네트워크 기관도 적고 횟수도 적은 경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전략 추진.
- 네트워크 기관은 적으나 네트워크 횟수가 많은 경우 네트워크 기관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2 사례관리 특성을 고려한 모델

- 직접서비스 제공 혹은 자원연계를 우선시하는 사례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중점을 두는 분야에 따른 전략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함.

3 민관 역할분담 특성을 고려한 모델

- 물적 지원 등의 경우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자원 연결은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가능.

4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모델

- 130%이하에 대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복지자원 관련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 130-180%의 대상자는 기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않고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함.

제안 2)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

1 네트워크를 위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 지역사회 위상 제고와 사업운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운영체제가 필요함. 네트워크 담당과 사례관리 담당이 협업하는 체제가 이상적임. 한부모 사례관리 담당이 네트워크를 병행한다면 한부모가족 전담사례관리제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임금, 고용 등의 안정성)도 필요함.

2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강화

- 기관장이 대외활동이 많은 네트워크 업무의 특성을 조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자들이 협의체, 통합사례관리 등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동시에 기관장이 대외적인 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운영

- 독자적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기반으로 협의체에 속한 기관들 중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크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함. 후자는 기존의 지역복지자원, 지역복지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전자는 기존의 복지자원 이외의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 가능.

4 네트워크 관련 평가지표 개선

- 평가지표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5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한 외부자원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직내외부의 환경 진단 및 기관에 맞는 네트워크 수행 전략 마련.

6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 현재 운영 중인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관리파트 신설.

7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기관 홍보 강화

-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관들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뉴스레터, 페이스북 등) 정기적으로 본 기관의 동향과 정보 제공
- 그 외 지역사회 기관들에게도 뉴스레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본 기관의 사명, 비전, 기능, 역할, 동향 등에 대해 꾸준히 홍보 필요.

제안 3)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

1 네트워크 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 한가원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역량을 키우며 인맥 등 네트워크 확장 기회도 갖도록 하는 여건 마련. 또한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네트워크의 실행방법과 주요사항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2 사례회의 등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사례회의 등 강화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충

-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민감성을 갖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자원 개발 위한 노력이 필요.

4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제공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의 정책방안 제시
- 한부모가족 수요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 및 주요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